

개원의 포럼 IV

치주-근관복합병소 처치의 임상적고찰

이영석 원장

이영석 치과의원



연구배경

근관병소는 근관감염에 의해 근단부 치주조직에 유발된 염증성 병소를 말하며, 치태로 인하여 변연부 치주조직에 초래된 염증성 병소를 치주병소라 한다. 치주조직과 치수가 질환에 이환된 경우, 근단공 및 부속관 그리고 노출된 상아세관을 통하여 이 두 조직사이에 독성물질의 상호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치주조직이나 치수 어느 한 조직의 질환은 서로 다른 조직의 병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근관병소는 대개 근단부 치주조직과 연관된 증상을 유발하고, 치주질환의 증상은 대부분 변연부 치주조직에 국한되어 나타나므로, 이 두 질환 간의 감별진단은 비교적 용이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임상적 증상이 혼동되어 원인요소의 감별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치주병소로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는 근관병소에 의해 의한 것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연구방법 및 재료

치주근관복합병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1차적원인이 치수질환인 경우, 2) 1차적원인이 치주질환인 경우, 3) 진성복합병소로 구분한다. 이 분류에 따른 임상증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치수질환 및 치수치료는 치수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치주질환 및 치주치료는 치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결론

성공적인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 달려있다. 골과괴가 치수병소에 의한다면 부착기구의 재생은 성공적인 근관치료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초기에 근관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차적인 치주병변이 예후를 결정할 것이다.